

시리즈: 복도 계절

보 브래디

2024년 11월 24일

복도 계절. 재정의하다. 여기와 저기 사이.

신약 성경에서 내가 보는 한 복도는 바로 십자가의 금요일과 부활의 일요일 사이의 복도입니다. 그것은 고요한 토요일의 복도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하고,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용하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진 그 순간. 토요일입니다.

최근에 제 상담자는 제가 토요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 예수님은 사실 3일이 아니라 3시간 만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들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가 있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신다고 믿어요. 심지어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플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하루를 계획하신 이유가, 그들을 따르던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경험한 것들:

**절망 (슬픔, 분노, 슬픔, 실망 - 영혼의 어두운 밤)**

의심 - 예수님이 누구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의심. 그들이 희망을 두었던 성경 속에서. 어쩌면 서로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 중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 유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복도 계절은 거의 항상 우리를 믿음의 영역에서 도전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엇이 나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진실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씨름: 슬픔을 통해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이 순간들에서 절망과 의심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씨름의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손해보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씨름은 성경적이고 거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할 경외심 어린 회복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세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교회에게 정말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겸손에 대해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총을 들고 천둥을 치며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대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 빌립보서 2:8-11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바울이 우리가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얼마나 빠르게 이끌어 가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높여지신 분임을 확신하기 위해 토요일의 복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욱 나의 부재 중에도 항상 순종했으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게 하시므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십시오.”

- 빌립보서 2:12-13

예수님은 이제 지극히 높여지셨지만,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스어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다'는 '수고하다'는 의미의 단어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세요. 씨름하세요. 그를

아세요. 그를 따르세요. 그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고요한 시즌, 슬픔의 시즌, 토요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 1. 경건한 회복력:

겸손하게 남으세요. 겸손은 분노, 냉소, 비판, 험담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겸손하게 남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남으세요, 그 마음을 찾기 어려울 때에도. 그를 느끼기 어려울 때에도. 한 친구와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머리는 그가 선하다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은 그걸 느끼기 어려워요." 자만은 말합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평가했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어." 겸손은 말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에서 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경외입니다.

### 마리아의 고백:

라자루스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서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한 자세에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겸손은 우리의 회복력에 경외심을 가져옵니다.

### 욥:

"내 고난의 모든 날 동안 나는 기다리리라, 내 변화가 오기를."

### 다윗:

"내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했을 것이다."

겸손하게 기다리세요. 겸손하게 기다리세요.

### 2. 정직하게 남으세요.

이제는 단순히 상황을 미화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 다윗 왕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멀리 떠나시나이까? 내가 낮과 밤에 울부짖을 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나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 시편 22:1-2 (열정적 번역)

"주님,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필요할 때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시편 13:1-2

이 구절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저는 좋아합니다...

"나는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는 무너져갑니다. 내 몸과 영혼의 고통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서는 노래가 없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가운데서 누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까?"

- 시편 6:2, 3, 5-7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성경적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 3. 굶주림을 유지하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낄 때, 그 필요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채우려는 유혹이 옵니다. 그분을 계속 원하세요. 계속 그분과 그의 말씀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아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하세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편 22에서 다윗의 간청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금요일. 다윗은 죽음과 절망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다음 말은:

"그러나 주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앉으시니 주님께서서 우리 조상들이 의지한 분입니다."

- 시편 22:3-5

다윗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그러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당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이력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 4. 붙잡혀 있으세요.

나는 신명기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 언급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비록 그 구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것이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와 사랑받는 자는 안전하게 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를 하루 종일 에워싸시며, 사랑받는 자는 그 어깨 사이에서 쉰다."

- 신명기 33:12

우리 아들 조시아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는 디즈니랜드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걷고 또 걸으며, 줄을 서고, 놀이기구를 타고, "It's a Small World"를 건디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시아가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안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아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이 더 강하거나 더 회복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상태를 비웃지도 않았습니까. 그는 그냥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아버지이고, 때때로 네 살짜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 해도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토요일 상태에 살고 있음을 아십니다 - "지금"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 우리는 그분을 부분적으로 보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흐릿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한 조각, 예배의 한 조각, 관대함의 한 조각, 친절의 한 조각을 위해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삶이 짜증나는 일에서부터 고통스러운 일까지 우리에게 타격을 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분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마지막 팁은 이것입니다:

#### 5.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싸움 속에서의 긴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던 그 초기 날들을 되돌아보세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신실하게 남았던 기억을 되새기세요. 때로는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맞기도 했으며, 때로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속될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큰 보상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 히브리서 10:32-36 (NLT)

참을성 있는 인내. 경외하는 회복력. 값진 씨름.

이것들이 우리의 근육과 은혜를 세우고, 강함과 부드러움을, 희망과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도록 허락한다면 그 무게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응답: 고군분투한 할렐루야